



2020년 9월 13일(제999호) 연중 제2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강론의 주제는 ‘자비’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자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자비는 인간의 동정심을 토대로 하여,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애와 사랑을 본받아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동정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희생과 인내가 결집된 행위이어야 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매정한 종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서 모든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때로는 망각(忘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복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복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탁하여,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이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각자의 일상에서 소박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자비의 얼굴을, 언제나 용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문」 중에서)



유윤상(토미스 베갯) 신부
중평 103위 성인(37시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집회 27,30-28,7

회 담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제 2 특 시

로마 14,7-9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마태 18,21-35

영 성 제 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한정홀 스타니슬리오



성인명: 한정홀 스타니슬리오 (韓正欽 Stanislaus)

신분: 양반, 신생, 순교자

활동연도: 1756-1801년

한정홀(韓正欽) 스타니슬라오는 전라도 김제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뒷날 전주에 살던 먼 친척인 유향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으로 가서, 그 자녀들의 스승이 되었다. 그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유향검 덕분이었다.

유 아우구스티노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된 한 스타니슬라오는,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열심히 실천해 나갔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전주를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한 스타니슬라오는 유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그해 3월에 체포되었다. 전주 감영으로 끌려간 그는 여러 차례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는 열심인 신자 김천애 안드레아와 최여겸 마티아를 동료로 맞이하게 되었다.

한 스타니슬라오와 동료들은 그 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1801년 8월 21일,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각각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 스타니슬라오는 고향인 김제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곳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8월 26일(음력 7월 1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각자의 세상에서



참 놀랍지.
 님계선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각자의 세상에서
놓고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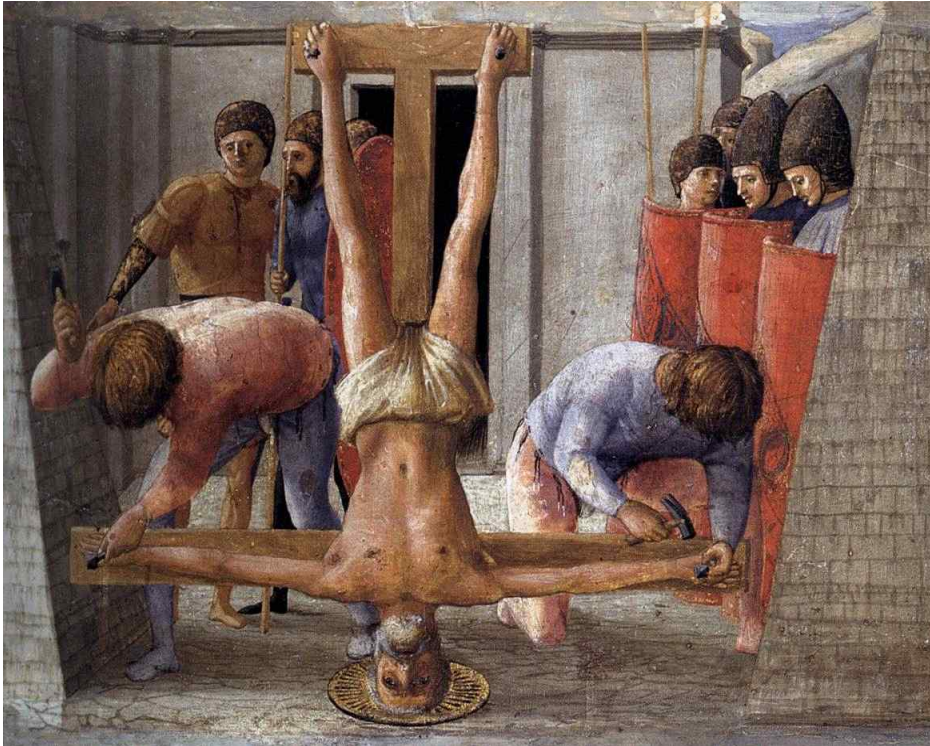
이게 얼마의 세상이야?

참 이게 더 신비야.

그 많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상화이야기

십자가형에 치해지는 베드로 성인



마시치오, 1426년 제작
 패널 위 탱페리화, 22x31cm / 베를린 미술관

그림은 교차하는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십자가 나무와 베드로 성인의 포즈, 십자가 뒤편으로 보이는 문의 입구, 그리고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공간(역삼각형) 구도가 그러하다. 이는 수학적 원근법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던 그의 관심을 잘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정연한 외부세계에 인간들은 어지럽게 배열되어 있다. 군인들은 여기저기 서성이며, 오른편의 군인들은 알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을 내비친다. 베드로 성인의 손에 못을 박고 있는 두 군인은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 자신들의 옷에 묻은 피도 아랑곳없이 핑장히 열심히 못을 박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아래로 쏠린 머리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살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비로 죽은 이들과 신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시입니다." (오늘 제2독서 중이시)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의를 위한 미사 - 연중 제24주일: 상송대 오장형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장 주교성성 제10주년
 때: 9월 15일(화)

- 참사회의

때·곳: 9월 15일(화) 18:30, 삼위일체 성당

- 국장회의

때·곳: 9월 15일(화) 11:00, 교구청 회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추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